

유가자유화와 업계의 향후 과제

1. 머리말

최근 국내 정유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석유산업 자유화 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석유제품가격과 수출입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99년부터는 정유산업의 신규진입자유화 및 대외개방이 시행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 정유업계는 그동안의 정부보호와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업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자율경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원유의 구입에서부터 정제, 판매, 이익창출을 위한 모든 과정을 공익과 소비자보호,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고유가정책 방침과 국제원유가 급등, 환율상승, 경기불황이 겹쳐 업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홍 찬 기

〈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

2. 석유산업 현황

(I) 석유수요

국내 석유수요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포함한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7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승용차 보급이 확대되고 환경문제가 크게 문제화됨에 따라 청정연료의 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석유화학공업시설의 대폭적인 증설과 나프타 수요의 급증으로 석유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90년에는 24.1%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1〉 연도별 석유 소비량

(단위 : 천배럴,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소 비	356,349	424,666	514,224	564,575	621,278	677,204	721,196
증가율	24.1	19.2	21.1	9.8	10.1	8.9	6.5

〈표-2〉 유종별 소비실적

(단위 : 천배럴, %)

	1995			1996		
	소비량	구성비	증감률	소비량	구성비	증감률
휘발유	59,385	8.8	16.2	67,971	9.4	14.5
등유	62,669	9.3	31.1	73,662	10.2	17.5
경유	163,113	24.1	10.8	172,621	24.0	5.8
B-C유	162,793	24.0	1.8	163,148	22.6	0.0
Jet Fuel	13,653	2.0	15.4	17,848	2.5	26.0
나프타	131,289	19.4	6.6	141,273	19.6	7.6
프로판	46,350	6.8	10.5	47,615	6.6	2.7
부탄	20,109	3.0	△6.3	20,833	2.9	3.6
기타	17,843	2.6	2.8	16,225	2.3	△5.4
계	677,204	100.0	8.9	721,196	100.0	6.5

〈표-3〉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단위 : 천배럴, %)

	원유		석유제품		계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1990	306,583	3.4	101,249	105.5	407,832	18.0
1991	399,304	30.2	110,675	9.3	509,979	25.1
1992	509,377	27.6	139,711	26.2	649,088	27.3
1993	560,563	10.0	173,428	24.1	733,991	13.1
1994	573,026	2.2	203,986	17.6	777,012	5.9
1995	624,945	9.1	224,503	10.1	849,448	9.3
1996	721,927	15.5	230,919	2.9	952,846	12.2

〈표-4〉 원유도입선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
중동	74.7	76.9	76.6	77.9	77.7
동남아	18.7	17.2	15.5	12.7	12.7
중남미	4.1	2.8	4.0	2.9	3.5
유럽·아프리카	2.5	3.1	3.9	6.5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90년이후에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96년까지 연평균 12.5%의 증가율을 보여 '90년에 356,349천배럴이었던 국내소비가 '96년에는 721,196천배럴로 6년사이에 2배이상 증가하여 세계소비 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2) 석유수출입

국내 석유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은 임가공을 포함하여 '90년에 4억1천만배럴(90억9백만불)을 돌파한 후 높은 증가세가 계속되어 '96년에는 9억5천3백만배럴(155억5천3백만불)에 이르러 6년 만에 2.3배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세는 '94년과 '95년에는 한자리 수로 낮아졌다가 '96년에 다시 12%대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96년에 정제시설 증설의 완공(유공 20만, LG 22만, 현대 20만B/D)되었기 때문이다.

'96년도 석유제품 내수(소비) 물량은 721,196천배럴로 '95년대비 6.5% 증가한 반면 수출물량은 국제 병커링을 포함하여 201,911천배럴로 '95년(159,890천배럴)보다 26.3% 증가하였고, 수입물량은 2.9%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지역별 원유 수입비중을 보면 '96년기준 중동 77.7%, 동남아 12.7%, 미주 3.5%, 유럽·아프리카 5.3%, 대양주 0.8% 순으로 아직도 중동지역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3) 정제시설

우리나라의 상압정제시설능력은 '96년말 현재 2,438천B/D이다. '96년도 국내소비는 1,976천B/D(연 721,196천배럴)로 100%의 가동률을 전제로 볼때 충분한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유공, LG-Caltex, 현대정유(주)가 각각 200천

B/D, 220천B/D, 200천B/D의 상압 정제시설을 '96년에 증설한 결과이다.

그러나 고도화시설은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국내 석유제품의 수요 패턴의 변화, 즉 제품의 경질화, 저유황화에 대응하고 고가의 경질원유 대신 저가의 중질원유를 처리할 수 있

는 중질유 분해시설과 탈황시설 같은 고도화 시설 건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4) 석유유통

석유제품의 유통은 상품의 특성상 전용의 저장시설, 수송수단, 판매시설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정유회사 → 대리점 → 주유소 → 소비자의 3단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3 단계의 유통경로로 판매되는 대표적인 석유제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이다. 나머지 제품은 정유사 또는 대리점에서 대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98년부터는 휘발유, 등유, 경유도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95년 11월부터 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된 이후 '97년부터는 석유판매업 허가제가 등록 또는 신고제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누구나 주유소업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유소의 증가는 판매물량의 감소로 이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표 - 5〉 석유제품 수출

(단위 : 천배럴,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물량	27,184 (-21.9)	69,744 (156.6)	92,253 (32.3)	103,995 (12.7)	93,926 (-9.7)	122,797 (30.7)	159,831 (30.2)

주 : 국제 병커링 제외
()은 증가율

〈표 - 6〉 석유정제시설 현황

(단위 : 천B/D)

	상압정제시설		중질유분해, 탈황시설		등경유탈황시설		나프타개질시설	
	가동	증설	가동	증설	가동	증설	가동	증설
유공	810	-	170	-	177	-	41.3	12.5
LG-Caltex	600	-	70	50	120	60	17	35
한화	275	-	-	110	37.5	50	31.5	-
쌍용	443	-	95	86	115	-	45	-
현대	310	-	34	-	99	-	23	25
계	2,438		369	246	548.5	110	157.8	72.5
	2,438		615		658.5		230.3	

주) 가동 : 1996년말기준, 증설 1999년말 기준

〈표 - 7〉 정제 및 고도화시설현황 국제 비교

(단위 : 천BPSD)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상압증류시설	2,438	15,354	4,867	1,170	426.0
고도화시설	268	8,511	966	338	70
수소화분해시설	89	1,336	121	87	20
접촉분해시설	160	5,283	749	60	36
열분해시설	19	1,892	96	191	14
고도화시설비율(%)	11.0	55.4	19.8	28.9	16.4

주 : 한국 - '96년말기준, 기타국 - '96. 1월 기준

〈표 - 8〉 석유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

대리점	주유소
109	8,625

(1996. 6월 현재)

(5) 국내외 석유개발

우리나라가 석유개발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이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석유개발 성과

〈표-9〉 해외 석유개발사업 진출 현황 ('96년말)

	1981~95	1996	계
진행사업	25(14)	12(5)	37(16)
- 생산	5(4)	2(2)	7(5)
- 개발	3(3)	-	3(3)
- 탐사	17(11)	10(4)	27(13)
종료사업	29(19)	1(1)	30(19)
계	54(29)	13(6)	67(29)

주 : ()는 진출국가수임.

〈표-10〉 해외 석유개발투자 및 회수현황

(단위 : 천달러)

광구명	총투자비	한국측 투자비			투자회수 (B)	회수율 (B/A)
		자체자금	융자지원	소계(A)		
예멘 마리브	2,319,082	560,596	13,612	574,208	1,098,439	191.3
인니 서마두라	547,252	218,085	73,643	291,728	110,203	37.8
이집트 칼다	273,816	30,351	9,120	39,561	37,019	93.6
아르헨 펠마라르고	153,464	21,109	3,028	24,137	21,790	90.3
이집트 자파라나	212,109	46,123	10,003	56,126	23,274	41.5
페루 8	184,040	43,555	30,061	73,616	40,457	54.9
영국 캡틴	15,040	5,000	45,000	50,000	-	-
아르헨 엘비날라르	2,800	2,800	-	2,800	104	3.7
기타	1,955,878	349,463	252,606	602,069	-	-
계	5,663,481	1,277,172	437,073	1,714,245	1,331,286	77.7

연료의 황함량기준

구분	황함유 기준별 시행시기		
	'97. 6.30까지	'97. 1부터 2001. 6.30까지	2001. 7이후부터
유	병커-A 병커-B 병커-C	1.0%이하 1.6%이하	0.5%이하 1.0%이하
류	경 유 저황화스유(LSWR)	0.1%이하 0.3%이하	0.3%이하

를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1981년부터 시작된 해외석유개발사업에서는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석유개발사업에는 유개공을 비롯하여 25개 기업에서

예멘, 영국, 페루 베트남, 인도네시아, 알제리 등 29개국 67개 사업에 진출 하여 19개국 30개사업은 사업성 결여로 종료하고 16개국 37개 사업은 계속 진행중에 있다.

1996년말까지 1,714백만달러가 투자되어 1,331백만달러를 회수 (77.7%)하였다. 총투자액중 25%는 정부지원이었고, 75%는 업계에서 조달한 것이다. '96년말 현재 해외에서 확보한 가채매장량은 144백만배럴로 작년에 우리나라가 도입한 원유 722백만배럴의 20%로 국내소비 73일분에 해당된다. '96년까지 자주개발원유량은 총 73백만배럴이며 이중 '96년도 생산량은 8.6백만배럴로 '96년도 원유소비량의 약 1.19%를 차지했다.

(6) 환경규제

환경규제의 주대상은 화석연료 연소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다. 국내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등으로 환경부는 승용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93년부터 유연휘발유 대신 무연휘발유를 생산공급케 하였고 방향족, 벤젠, 산소합유량 등 주요 항목의 규격을 강화하고 있고 또 초저유황유의 사용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작년 12월말에 연료 사용규제고시를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새 고시에 의한 품질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고 있다.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경유 (황함유 기준 0.1% 이하)

시·도		대상 지역별 시행 시기	
		고시시행일부터 '97. 6. 30	'97. 7. 10이후
특별(광역)시		서울 등 6대도시	
도	경기	수원 등 21개 시·군	전국
	강원	춘천 등 5개시	
	충북	청주 등 3개시	
	충남	아산 등 3개 시·군	
	전북	전주 등 3개시	
	전남	여천 등 6개 시·군	
	경북	포항 등 5개시	
	경남	울산 등 7개시	
	제주	전지역	

● 중유

1.0%이하 B-C유 공급·사용지역

시·도		대상 지역별 시행 시기		
		기시행지역	'96. 7. 1부터	'97. 7. 1부터
특별(광역)시		서울·인천·부산·대구	광주·대전	-
도	경기	수원 등 17개 시·군	이천 등 3개시·군	전국 (0.5% 이하 중유공급· 사용지역은 제외)
	강원	-	강릉 등 3개시	
	충북	-	청주 등 3개시	
	충남	-	전주 등 3개시	
	전북	-	여천 등 3개시·군	
	전남	-	포항 등 2개시	
	경북	-	울산 등 6개시	
	경남	-	-	
	제주	-	전지역	

이와같이 사용연료에 대한 직접규제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서는 규제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배출방지시설을 정유공장, 저유소, 주유소 등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유공장, 저유소, 주유소 등에 대해

유류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 오염토양에 대한 2년내 원상복구도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사고시 방제조치를 민간 스스로 처리토록 하기 위해 정부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규모 방제선과 방제기자재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방제시설을 갖추는데만

향후 5년간 약 1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의 대부분을 정유 5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규제의 강화는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석유업계에는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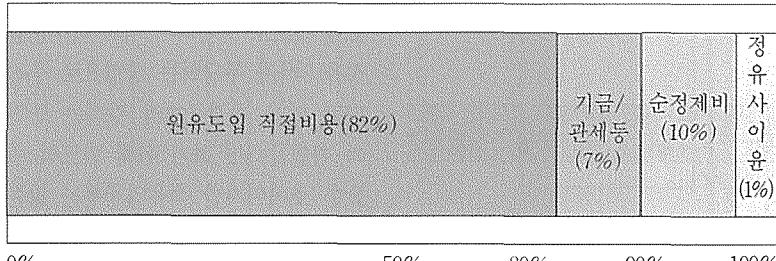
(7) 유가결정

'97. 1. 1부터 유가연동제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업계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가는 '94년부터 실시하였던 유가연동제의 기본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석유제품의 원가구성상 원유 도입비와 수입부과금·관세 등 정부 부과금이 89%로 정유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1%중에서도 감가상각비, 시설투자에 따른 차입금 이자, 수송·저유비·인건비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휘발유가격만을 갖고 유가수준을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나 실제로는 단위 원유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종합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원유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율과 제품별 가격은 비례하지 않고 제품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각 정유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있다.

유가자유화가 이루어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유가변동을 보면 국제

〈그림-1〉 석유제품의 평균원가 구성

〈표-11〉 정유사 평균 공장도 가격 변동 (세후)
(단위 : 원/㎘)

1997	1월	2월	3월
휘발유	760,59 (7.59)	778,27 (17.67)	776,18 (-2.09)
등유	316,67 (8.67)	350,36 (12.15)	334,52 (-15.84)
경유(0.1%)	335.30 (24.30)	339.28 (3.39)	325.06 (-14.22)
B-C유(1.0%)	174.37 (0.04)	177.99 (3.62)	173.81 (-4.18)

주 : ()는 전월비 증감율, 매월 1주 가격 기준

원유가와 환율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유사간의 가격차이는 아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유가자유화의 의미와 평가

(I) 유가자유화의 의미

국내 석유산업은 지난 30년간 석유가격, 생산, 유통, 수출입 등 전반에 걸쳐 타 산업에 비해 강력한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어왔다. 정부의 물가정책과 산업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저유가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정유사들의 이윤도 정유부문 자기자본의 세후 10% 수준으로 제한하여 최소한의 이익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UIR 협상이 타결되면서 경제의 자율화·개방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되면서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작되었다. '95년 11월에는 전국적으로 주유소거리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94년 1월에는 유가전면자유화의 전단계로 유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는 정부가 예고하였던대로 규제완화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석유가격 및 수출입자유화와 함께 석유유통업에 대한 신규진입도 자유화되었고 내년부터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도 허용되며 '99년부터는 석유경제업에 대한 신규진입과 정제업 및 석유유통업에 대한 대외개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시 말하면 '99년부터는 국내외 어느 기업이든 정제업이나 유통업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석유소비 세계 6위의 시장인 우리나라에 외국 석유메이저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칼텍스와 아람코만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형태로 한국에 진출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에너지경제원이 작년에 조사 (국내 39개, 해외 26개 석유관련회사)한바에 의하면 아직은 정제업 신규참여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통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가자유화는 그동안의 정부규제로부터 자율경영권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시장의 개방화로 경쟁의 시대를 맞는 기회이자 위기인 것이다.

(2) 유가자유화의 평가

유가자유화가 실시된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은 공과를 평가하기 힘들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장조는 있었다.

첫째로는 작년말과 금년초에 국제 원유가의 계속적인 상승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의 인상이 유가자유화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았으나 다행히도 3월부터 국제 원유가의 하락과 동시에 국내 석유가도 즉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둘째로는 일부지역에서 유통마진을 현실화(?) 한다는 명분으로 석유값은 인상하였다가 행정체지를 받아 당일로 원상

유가자유화 초기에 예상되는 문제점

- 정부 통제하에 억제되어 왔던 경제비, 유통마진 등 각종 비용을 일시에 현실화할 경우 과도한 유가상승으로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부담 우려
- 석유업체간의 소모적 과당 가격경쟁 발생시 대외개방을 앞둔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약화
- 석유수출입 자유화와 동시시행에 따른 국제 가격구조로의 이행 과정에서 유종간 가격등락폭 확대와
- 유통업 신규진입 자유화등으로 인한 유통시장의 구조 개편에 따른 가격의 빈번한 변동 및 지역별·소비자별 가격 차이 발생으로 소비자 선택에 혼란 초래 소지

대책의 기본방향

-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가격경쟁의 유도를 통해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키 위해
 - 시장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초기 6개월간 정유사 판매가격 사전보고제를 실시하고 이후는 사후보고제로 전환
 -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제 강화 및 석유류 유관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 지나치게 가격이 급등락하여 국민경제에 심대한 충격이 우려되거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의 행정지도 실시

회복시킨 일이 있었다.

셋째로는 정유사간 가격차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는 각 정유사들이 조직개편을 통한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로는 유통업계의 대고객 서비스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의 현상들로 보아 유가자유화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통산산업부가 유가자유화를 실시하면서 발표한 예상문제점과 대책방향을 보면 위와 같았다.

작년 12월 20일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석유가격은 경쟁시장의 가격구조

로 이루어지며 과점력을 활용한 초과 이윤을 추구하기는 힘들 것이고 지역별 수요의 계절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방·경쟁시장에서 석유제품가격 결정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함수관계에 있어 유종별 가격변동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공장도 가격으로 볼때 휘발유 가격은 인하되고 등유, 경유 등은 인상되어야 하나 정부부과금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유가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대한 기본대책을 강구한 이상 국제석유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한 국내시장에도 큰 변혁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유가자유화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양립할 때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석유 관계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4. 향후과제

유가자유화가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시행초기 6개월간은 가격변동마다 사전에, 6개월후부터는 사후에 관계부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유개공에서는 매주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소비자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함으로서 사실상 행정지도의 길을 터놓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유사 스스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정유업계는 가격지율성을 보장받은 대신 석유제품의 적기, 안정적공

〈시장참여 부문별 예상되는 영향〉

	긍정적 측면(기회요인)	부정적 측면(위협요인)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품질향상 및 서비스 향상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자담합에 의한 유가상승 우려 안정공급저해 및 가격상승우려 (벽지/군소소비자)
정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이익 확보로 자력성장 기반구축 경영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광고비용 등 비생산부문 경쟁심화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조건 개선 판매마진 확대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신규참입자 난립 가능성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운용 자율화정책에 부합 정유사에 대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관리의 어려움 지역간 가격차이 발생

급을 전제로 제품의 원가절감, 시장 확보, 품질보장 등 경영상 모든 책임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1) 원가절감

석유제품의 평균원가구성에서 보았듯이 정유사가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원가의 대부분이 원유수입비와 정부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가절감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① 원가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구입비를 타사보다 줄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석유정보에 빨리 접근하여 국제원유시세와 전망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유재고 관리와 최적기에 구매하는 등 원유구입 관련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해외석유개발에 참여하거나 유전을 과감하게 매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투기성이 강한 모험사업이긴 하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성공여하에 따라 안정적인 원유확보와 원유

구입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③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장기지를 적소에 확보하고 수송수단을 대형화하여 수송거리와 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비싼지가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필요 한 곳에 저유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부지확보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④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합리화 노력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2) 시장확보

지난해 62만B/D의 상압정제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수요보다 공급능력이 23.4% ('96년말기준)나 초과상태를 보이고 있는데다 고유가 정책에 따라 석유제품소비가 둔화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시장확보는 각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생산제품

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은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 (수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수와 수출시장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수출가격) 차이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외의 수익성이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정제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내 유통시장의 과열경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93년 11월 서울 등 6대도시의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된 이후 주유소수가 급증함에따라 '96년말 현재 전국에 9천여의 주유소가 생겨났다. '93년의 5,927개의 주유소가 3년사이에 1.5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주유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단위 주유소당 판매물량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주유소 경영을 압박하여 주유소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업성이 유망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유소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주유소 관리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3) 투자재원 조달문제

국내 정유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관리 우선정책과 엄격한 이익 규제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최근 5년기간중 '93년에 170억원 (정유부문 전체)의 소폭흑자를 한번 내었을 뿐 해마다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원화평가절하

〈표-12〉 회사별 폴-사인 현황

1996.12말 현재

	유공	LG	한화	쌍용	현대	계
주유소 수	3,384	2,429	1,047	1,176	977	9,014 ^①
구성비	37.5	27.0	11.6	13.1	10.8	100

* ① 무풀주유소

(51.20원/\$상승 : '96년말 847.50 → '97. 4.10 890.70원/\$)로 인해 원화 표시 원유대 증가와 환차손이 확대되고 있다. 환차손에는 석유도입시 유전스사용에 따른 유전스 환차손과 외화차입금 환차손이 포함되는데 특히 투자의 경우는 전액 정유사 손실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현재 원유도입에 따른 유전스 환차손 규모는 연간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조한 수익으로는 앞으로 계속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정유업계로서는 국내외적으로 강

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소비자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도화 시설(현11%)의 계속적인 증설과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원유비축시설의 증설 원가절감을 위한 물류기지 확보 및 건설 노후 수송수단의 교체 및 대형화 그리고 저가의 원유를 안

〈표-13〉 정유사 경영실적 추이

(단위 : 억원)

	부문	유공	LG-Caltex정유	한화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	합계
1991	매출액	40,201	27,083	7,649	18,139	7,454	100,526
	정유	36,644	24,084	7,068	16,529	7,155	91,479
	기타	10,890	2,999	587	1,610	299	16,385
	세후손익	245	466	43	403	-1,632	-475
	정유	14	188	30	219	-1,710	-1,259
	기타	231	278	13	184	78	784
1992	매출액	47,209	31,039	13,149	20,429	8,462	120,288
	정유	44,477	28,096	12,518	18,595	8,167	111,852
	기타	13,367	2,943	1,100	1,834	295	19,539
	세후손익	293	463	-296	772	-792	440
	정유	115	196	-422	499	-878	-490
	기타	178	267	126	273	85	929
1993	매출액	53,270	34,375	15,865	20,784	8,929	133,222
	정유	49,170	31,286	15,184	18,972	8,636	123,248
	기타	12,897	3,089	1,261	1,812	293	19,351
	세후손익	354	670	-293	794	-486	1,038
	정유	424	309	-529	567	-600	170
	기타	-70	361	236	227	114	868
1994	매출액	58,657	35,307	15,693	24,154	9,910	143,721
	정유	52,284	31,287	14,740	21,839	9,597	129,748
	기타	15,308	4,020	1,570	2,315	312	23,524
	세후손익	530	824	-457	1,127	-471	1,553
	정유	-125	205	-838	727	-590	-621
	기타	655	619	381	400	119	2,174
1995	매출액	65,933	44,562	19,093	34,743	11,483	175,814
	정유	57,820	38,295	17,930	32,032	11,134	157,211
	기타	18,480	6,267	2,161	2,711	349	29,968
	세후손익	1,032	1,575	107	1,197	-448	3,463
	정유	-480	-388	-469	880	-558	-1,015
	기타	1,512	1,963	576	317	110	4,478

정적으로 확보하고 현 2% 이하의 자주개발 원유도입비율을 10% 이상 끌어 올리기 위한 유전개발에의 투자재원 등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커다란 과제이다.

(4) 석유정보망체제의 구축

끝으로 정유산업이 중점을 두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석유정보망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경영전략과 경영효율화를 기하는 일이다. 현대 정보화시대에 있어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좌우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정유산업은 원유의 도입, 생산 수급, 유통, 재고 등의 상황과 국내외 시장정보를 적시에 파악하여 경영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맷는 말

국내 유가의 자유화 실시와 앞으로 대외개방 등 석유산업 자유화 일정은 우리업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의 시기를 맞아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여건, 각종 제도 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정유산업은 장기간 정부의 보호와 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하는 시장경제 체제에 익숙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유가자유화의 실시와 동시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고유가 정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위해 정부부과금의 조정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내유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확실치 않지만 고유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주요 대상품목은 등유와 경유가 될 것이다. 이경우 작년 12월 14일 교통세 20% 인상으로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727 원에서 815원으로 인상되었을때처럼 소비자의 원성은 정유업계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부과금의 일방적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의 인상은 정유업계로 하여금 각종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이익창출을 사실상 봉쇄당하고 국민의 지탄만 받게 되므로 정부의 유가정책은 업계, 소비자가 공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99년 이후의 대외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리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거대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즉, 국가기간산업인 정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곧 국가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 정부나 언론, 소비자 모두가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공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

용어해설

양기본드

정부나 업체가 美시장에서 달러貨로 채권발행

미국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업체가 미국자본시장에서 달러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본이외의 국가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업체가 일본시장에서 엔화(円貨)로 발행하는 채권을 사무라이 본드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국자본시장은 규모도 크지만 매우 안정돼 있어 금리조건을 유리하게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등이 양기본드를 발행한 적은 있으나 일반기업이 양기본드를 발행한 것은 최근 SK텔레콤의 2억3천만달러가 처음이다.

양기본드는 발행절차 자체가 까다롭고 엄격한 신용평가를 거쳐 일정수준이상의 등급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양기본드를 발행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해당기관 또는 기업체의 공신력이 인정됐다고 볼수 있는 부수효과가 있다.

최근들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자조달이 예전같이 않은 상황에서 양기본드의 발행은 대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의 대체수단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